

# 보도자료

2026년 5월 27일 공보 2026-05-26호

이 자료는 5월 27일 22시부터 취급하여  
주십시오.

## 제 목 : 한국은행, BIS 등과 공동 수행한 프로젝트 아고라 플랫폼(프로토타입) 구축 및 실거래 테스트 참여

- 한국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6개국\* 중앙은행, 국제금융협회(IIF) 및 40여 개 글로벌 금융기관 등과 함께 프로젝트 아고라(Project Agora) 프로토타입(prototype)\*\*을 공동 구축하였음

\* 5개 기축통화국(미국, 프랑스[유로지역 대표], 영국, 일본, 스위스), 멕시코

\*\* 개념검증(PoC)을 넘어 현행 제도적 여건 하에서 작동 가능한 핵심 아키텍처와 업무 프로세스를 검증하고자 구축된 플랫폼

- 토큰화된 중앙은행 지급준비금과 은행예금 기반의 플랫폼을 토대로, 기관 간(wholesale)\* 글로벌 지급거래의 비효율성(느린 처리속도, 높은 비용, 낮은 투명성 등)을 상당 부분 개선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음

\* 아고라 플랫폼은 기업과 금융기관의 지급거래를 대상으로 함

- 한국은 이어서 추진될 실거래(real-value transactions) 테스트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

- 한편, 캐나다 중앙은행도 프로젝트 아고라에 신규 참여할 예정

- 이에 따라 아고라 플랫폼의 글로벌 수용성이 증대되고, 프로젝트 추진 동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

※ 자세한 내용은 "<붙임 1> BIS 보도자료 국문 번역본",  
"<붙임 2> BIS 보고서의 Executive summary 국문 번역본",  
"<별첨 1> BIS 보도자료 원문",  
"<별첨 2> BIS 보고서 원문" 을 참고

[문의처] 디지털화폐실 디지털화폐협력팀 팀장 장진욱, 차장 박지순

Tel : 750-6767, 6878 Fax : 750-6519 E-mail : [digitalcurrency@bok.or.kr](mailto:digitalcurrency@bok.or.kr)

[공보관] Tel: 759-4199, 4135

"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 국제결제은행(BIS)의 보도자료 원문을 번역한 것으로 원문이 국문 번역본보다 우선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프로젝트 아고라는 토큰화<sup>1)</sup>가 기관 간(wholesale)<sup>2)</sup> 글로벌 지급거래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프로토타입을 기반으로 실거래 테스트를 추진할 예정**

- 프로젝트 아고라의 프로토타입(prototype)은 중앙은행 지급준비금의 결제 안전성과 무결성<sup>3)</sup>을 유지하면서도 토큰화 및 프로그래밍 기술을 활용하여 기관 간 글로벌 지급거래에서 오랫동안 지속된 비효율성을 상당 부분 개선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프로젝트 아고라는 토큰화된 중앙은행 지급준비금과 상업은행 예금을 활용하여 기관 간 글로벌 지급거래의 원자적 결제(atomic settlement)<sup>4)</sup>가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동 프로젝트를 통해 원자적 결제가 모든 참여 관할권과 통화에서 안전하고 완결성<sup>5)</sup>있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일부 통화와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실거래(real-value transactions)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이며, 캐나다 중앙은행도 참여할 예정이다.

프로젝트 아고라는 국제결제은행(BIS)과 국제금융협회(IIF)가 주관하는 전례 없는 민관협력 프로젝트로, 토큰화된 중앙은행 지급준비금과 은행예금을 기반으로 다중통화 결제를 통해 기관 간 글로벌 지급거래의 비효율성을 안전하고 보안성을 갖춘 방식으로 개선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동 프로젝트에는 영란은행, 뉴욕 연방준비은행, 프랑스 중앙은행(유로시스템 대표), 일본은행, 한국은행, 멕시코 중앙은행, 스위스 중앙은행 및 40여 개 금융기관이 참여하였으며, 프로젝트의 수행 결과를 상세하게 기술한 보고서가 오늘 발간되었다.

1) 토큰화(tokenisation): 금융상품 등 전통적인 자산을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플랫폼에서 기록 가능한 디지털 증표로 변환하거나 플랫폼 상에 직접 발행하는 과정(역자주)  
 2) 프로젝트 아고라는 기업과 금융기관의 지급거래를 대상으로 함(역자주)  
 3) 결제 무결성(settlement integrity): 지급결제 과정에서 모든 거래가 정확하고 완전하며, 오류 없이 신뢰 가능하게 처리됨을 의미(역자주)  
 4) 원자적 결제(atomic settlement): 더 이상 나누어질 수 없는 단위로서의 원자 의미를 차용한 것으로, 연결된 모든 단계의 거래가 하나의 단위가 되어 모두 실행되거나 모두 실행되지 않는 처리 과정(all-or-nothing)을 의미(역자주)  
 5) 결제 완결성(settlement finality):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는 지급, 청산, 결제가 참가기관의 파산 등의 상황에도 취소되거나 무효화되지 않고 해당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 규칙,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제도적으로 보장(역자주)

보고서에서는 프로토타입 개발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토큰화된 중앙은행 지급준비금과 은행예금을 이용한 다중통화 결제 체계를 통해 안전하고 보안성을 갖춘 방식으로 기관 간 글로벌 지급거래의 비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
- 원자적 결제는 기관 간 글로벌 지급거래를 “전체 실행 아니면 전체 미실행(all-or-nothing)” 방식으로 결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통화와 관할권 전반에 걸쳐 안전하게 구현될 수 있다.
- 관할권 중앙은행은 프로토타입의 계층적 아키텍처<sup>6)</sup>를 통해 공유 플랫폼 상에서 자율성과 자국 통화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
- 프라이버시는 민감한 데이터를 보호하면서도 규제 준수(regulatory compliance)를 지원하는 기술을 통해 잔액(balance)과 거래(transaction) 수준 전반에 걸쳐 안전하게 보장될 수 있다.
- 프로젝트 아고라에서의 토큰화는 중앙은행 지급준비금과 은행예금의 법적 성격이나 관련 채무의 성질을 변경하지 않는다.
- 법률 분석 결과, 결제 완결성은 프로젝트에 참여한 7개 관할권 전체에서 달성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각 관할권의 법적 체계에 가장 부합하는 기술적·운영적·계약적 요건을 정의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 동 플랫폼은 모듈형 방식으로 설계되어 조건부 지급 및 24시간 상시(always-on) 지급 등 다양한 기능으로의 확장이 용이하며, 규제 및 데이터 공유 체계의 발전에 따라 자금세탁방지(AML), 테러자금조달방지(CFT), 금융 제재 준수 및 사기 탐지 분야의 기능도 고도화할 수 있다.

중앙은행을 포함한 프로젝트 참여기관들은 프로토타입의 잠재적 효용을 심층 검토하는 데 있어 강력하고 일관된 관심을 표명하였다. 후속 작업에서는 중앙은행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민간부문의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캐나다 중앙은행도 프로젝트 아고라에 신규 참여하며, 민간 금융기관의 추가 참여도 예상된다.

프로젝트 진행에 따른 추가적인 정보는 BIS 및 IIF 웹사이트에 게시될 예정이다.

6) 아고라 프로토타입은 2계층 구조로 설계되었으며, 토큰화된 은행예금이 기록되고 모든 참여기관이 접근할 수 있는 ‘공통 계층(unifying layer)’과 토큰화된 중앙은행 지급준비금이 기록되는 독립적인 ‘관할권 계층(jurisdictional layer)’으로 구성(역자주)

※ 국제결제은행(BIS) 보고서의 Executive summary 원문을 번역한 것으로 원문이 국문 번역본보다 우선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프로젝트 아고라(Agorá, 그리스어로 “시장[marketplace]”을 의미)는 토큰화와 프로그래밍 기술(programmability)을 활용하여 기관 간(wholesale) 글로벌 지급거래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제결제은행(BIS)과 국제금융협회(IIF)가 주관하는 민관협력 프로젝트이다.

현행 국가 간 지급은 구조적 비효율성으로 인한 느린 처리속도, 높은 비용, 불투명성의 문제를 안고 있다. 복잡하고 순차적인 프로세스와 네트워크 구조는 거래 지연과 비용을 증가시키며, 지급결제 전과정(end-to-end)의 가시성을 제한하는 한편 유동성 파편화(silo-liquidity)를 초래하여 현금 및 재무 관리를 어렵게 한다. 이러한 마찰 요인들은 글로벌 무역과 금융 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하며 혁신과 성장을 제약한다.

프로젝트 아고라는 지난 2년간 토큰화와 프로그래밍 기술을 활용한 다중통화 결제 메커니즘이 이러한 비효율성과 마찰 요인을 완화하여 기관 간 글로벌 지급거래를 보다 안전하고 신속하며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가설을 검증해 왔다. 중앙은행 지급준비금과 상업은행 예금을 토큰화함으로써 현행 은행 시스템의 안전성(safety), 공신력(trust), 신뢰성(reliability)을 유지하는 동시에 안전하고 검증 가능한 국가 간 지급체계를 구현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프로젝트 아고라에서 구상한 솔루션은 조건부 지급 및 24시간 상시(always-on) 국가 간 지급 등의 새로운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을 검증하기 위해 BIS 및 IIF는 7개 중앙은행과 40여 개 규제대상(regulated) 금융기관과 함께 규모와 설계 측면에서 전례 없는 협력 체계를 마련하였다. 그 결과 구축된 프로토타입은 글로벌 지급거래의 근간인 환거래은행(correspondent banking)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성능 향상을 위해 신기술을 접목하였다.

프로젝트 아고라는 그 목표를 달성하였다. 프로토타입은 공유 분산원장기술(DLT) 기반 플랫폼이 토큰화 환경에서 안전한 결제를 지원하고 기관 간 글로벌 지급거래에서 오랫동안 지속된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프로토타입 구축과 성공적인 테스트는 차세대 솔루션 도입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 프로젝트 아고라의 프로토타입

프로토타입의 아키텍처는 2023년 BIS가 제시한 통합 원장(unified ledger)<sup>1)</sup> 개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토큰화된 중앙은행 지급준비금과 은행예금을 공유 분산원장기술(DLT) 플랫폼 상에 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국가 간 다중통화 결제가 가능해지며, 참여기관은 스마트계약을 통해 지급을 실행할 수 있다.

프로토타입은 단순한 개념검증(PoC)을 넘어 여러 단계의 마일스톤(milestone)을 거쳐 단계적으로 개발되었으며, 참여기관과 함께 사용자 테스트<sup>2)</sup>를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프로그래밍 가능한 플랫폼 상에서 환거래은행 모델을 구현하는 데 수반되는 법률 및 규제 고려사항에 대한 평가도 수행하였다. 이는 법률적 고려사항을 설계 단계에 반영함으로써 프로젝트 아고라의 목표에 부합하는 플랫폼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추가 검토가 필요한 법률적인 측면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실제로 프로토타입 설계 시 기존 프레임워크와의 조화를 위해 법률 검토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였으며, 향후 추가 검토가 필요한 영역도 식별하였다.

## 프로토타입의 주요 특징

프로토타입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원자적 결제)** 원자적 결제는 모든 잔액이 일괄적으로 업데이트(갱신)되거나 모두 업데이트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결제 리스크를 제거한다. 프로토타입은 7개 참여 관할권 전체에서 토큰화된 중앙은행 지급준비금과 은행예금에 대한 원자적 결제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 **(2계층 아키텍처)** 아고라 프로토타입은 2개의 블록체인 계층으로 구성된다. 하나는 토큰화된 은행예금이 기록되고 모든 참여기관이 접근할 수 있는 공통 원장(unifying ledger)으로 구성된 공통 계층(unifying layer)이고, 다른 하나는 토큰화된 중앙은행 지급준비금이 기록되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관할권 원장들(jurisdictional ledgers)로 구성된 관할권 계층(jurisdictional layer)이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각 관할권은 자율성과 규제 통제를 유지하면서 자국 원장을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다.

1) 통합 원장은 토큰화된 화폐뿐 아니라 토큰화된 자산을 프로그래밍 가능한 공통 플랫폼에서 발행 유통함으로써 토큰 경제의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시장 인프라를 지칭(BIS, 2023년 연례 경제 보고서[2023.6월])

2) 프로토타입 구축 과정에서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가상환경에서 시나리오에 기반한 기능 테스트 (User Acceptance Testing)를 실시하여 주요 기능이 정상 작동됨을 확인(역자주)

- **(프라이버시 제어)** 프로토타입은 토큰 및 거래 수준 전체에서 데이터 및 프라이버시를 보장한다. 토큰 수준에서는 프라이버시 침해 방지 기술을 통해 고객정보를 포함한 민감한 데이터를 비공개로 유지함과 동시에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구현하였다. 거래 수준에서는 프라이버시 그룹을 통해 거래에 관여된 참여기관에게만 관련 정보가 공유되도록 하며, 데이터를 공유하는 경우 관련 법률 및 규제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 **(금융범죄 제어)** 개별 금융기관은 기밀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자금세탁 방지(AML)·테러자금조달방지(CFT)·사기방지 제어 및 금융제재 검증을 독립적으로 각각 수행하며, 플랫폼은 결제 이전 모든 필수 검증이 완료되도록 보장한다. 또한 프로토타입은 향후 금융범죄 관련 정보 공유를 강화하기 위한 기능 구현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 **(데이터 표준화 및 모범 운영방식의 구현)** 프로토타입은 LEI(법인식별코드), ISO 20022와 같은 글로벌 결제 데이터 표준을 적용하고, “수취인 확인3)” 업무 프로세스를 구현하여 데이터 일관성과 결제 무결성을 강화하였다.
- **(결제 완결성)** 법률 분석 결과, 결제 완결성은 프로젝트에 참여한 7개 관할권 전체에서 달성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각 관할권의 법적 체계에 가장 부합하는 기술적·운영적·계약적 요건을 정의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 **(상호운용성을 고려한 설계)** 아고라 플랫폼은 기존 지급결제 인프라와 함께 운영되도록 설계되었으며, 원활한 국가 간 지급거래 업무 처리를 지원하여 기존 운영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관할권과 자산을 추가할 수 있다.

## 주요 성과

프로토타입은 공유 인프라, 상호운용 가능한 토큰, 프로그래밍 가능한 업무 프로세스, 원자적 결제 및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실행 체계를 통해 국가 간 지급의 취약점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그림 1 참고) 특히 결제 시 모든 계좌의 잔액 업데이트가 일괄 실행 또는 미실행 되도록 하는 원자적 결제를 통해 신용 및 결제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다.

3) 수취인 금융기관에서 수취인 정보를 검증하는 절차로, 아고라 플랫폼에서는 결제 프로세스가 진행되기 전에 수취인 확인 절차를 먼저 수행. 검증 작업은 수취인 금융기관의 자체 시스템에서 실행되며, 지급결제 진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승인 결과만 플랫폼을 통해 공유(역자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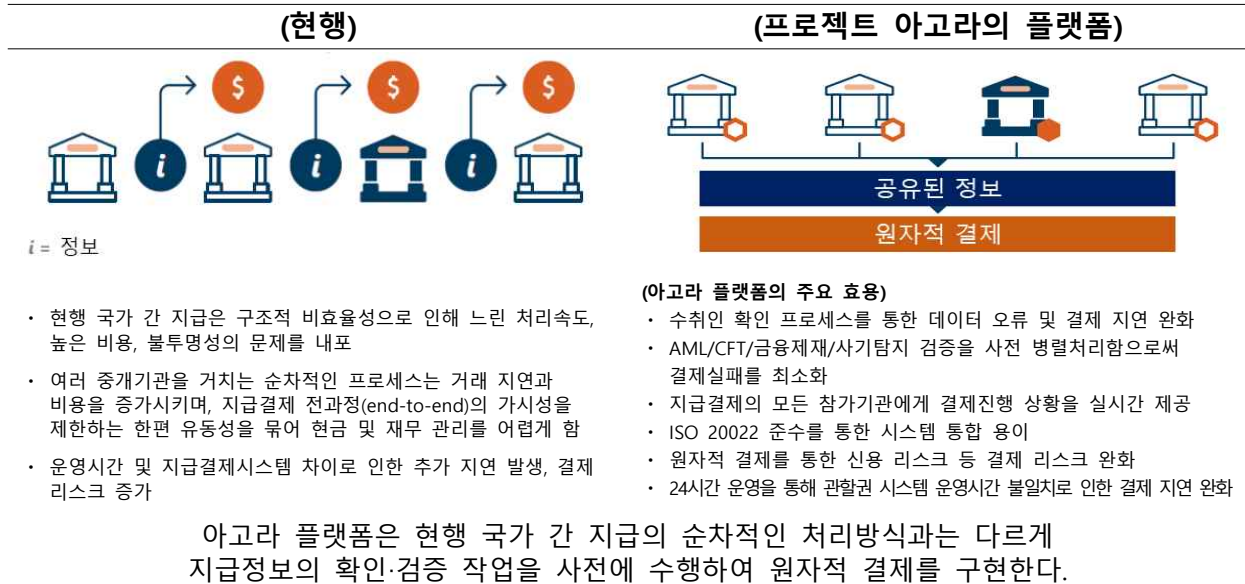
프로토타입은 지급경로 탐색 메커니즘과 금융제재 심사·AML/CFT 확인·사기 거래 탐지 등의 검증 절차를 결합해 이를 병렬적으로 수행토록 함으로써 순차 처리의 필요성을 줄였다. 또한, 결제 유동성이 투입되어 결제가 실행되기 이전에 지급정보의 확인·검증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었다. 이처럼 자금 이체와 정보 처리를 분리함으로써 원자적 결제가 가능해지며, 이를 통해 결제 실패율을 낮추고 결제자금 이체 지시 이후 거래가 취소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결제자금이 잠금(lock) 처리된 후 수초 내 결제가 완료되므로 처리 속도도 개선된다. 또한 플랫폼은 24시간 상시 운영되도록 설계되어 관할권 간 운영 시간 불일치로 인한 결제 지연을 완화할 수 있다.

지급결제 과정의 투명성도 향상된다. 모든 거래당사자는 지급결제 진행 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으나, 거래당사자 외에는 거래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 향후 이러한 가시성은 채무자(지급인)과 채권자(수취인) 등 최종 이용자까지 확대 적용될 수 있다.

**현행 및 아고라 플랫폼에서의 기관 간 글로벌 지급거래 프로세스 (프로젝트 아고라 플랫폼의 효용)**

(그림 1)



자료: 프로젝트 아고라

프로토타입 설계는 사용자 테스트를 통해 검증되었으며, 공유 원장이 기관 간 글로벌 지급거래의 여러 제약요인을 해결할 수 있음을 입증함으로써 주요 목표를 달성하였다. 또한 향후 토큰화 관련 이니셔티브 추진에 필요한 법률적, 운영 측면의 실현 가능성도 확인하는 추가 성과도 도출하였다.

-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화는 국가 간 지급의 업무 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프로토타입은 기존의 분산된 프로세스를 통합하여 다수 계좌간 입·출금이 어떻게 동시에 처리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 **새로운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민관협력이 필수적이다.** 프로토타입은 광범위한 참여를 통해 기술·법·비즈니스 측면의 다양한 요구 사항을 수용할 수 있었다.
- **공유 원장을 통해 각 관할권의 자율성과 유연성이 보장된다.** 각국 중앙은행은 플랫폼의 2계층 설계를 통해 관할권의 특성에 맞는 시스템 구축 이니셔티브를 추진할 수 있다. 공유 플랫폼은 토큰화된 지급준비금과 은행예금을 통한 원자적 결제 및 지급 프로세스 통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통 기반을 제공한다.
- **토큰화는 화폐의 법적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경하지 않는다.** 법률 분석 결과, 금본 단계(프로토타입 구축)에서 추진된 토큰화는 기초 잔액의 법적 성격이나 토큰화된 지급준비금 및 은행예금이 지닌 채무의 성질을 변경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행 법률·규제 체계에서도 토큰화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다.
- **공유 원장은 데이터의 전면 공유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데이터는 프라이버시 제어 기능을 통해 필요한 경우 참여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한적으로 공유된다.
- **토큰화된 예금의 상호운용성은 토큰화 금융 생태계 구축의 핵심 요소이다.** 토큰화된 중앙은행 지급준비금을 통한 결제는 이러한 상호운용성을 실현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예금이 다양한 환경에서 원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국가 간 자본시장 거래를 포함한 보다 광범위한 응용 분야로의 확장을 뒷받침한다.

또한, 프로토타입은 기능을 고도화하고 추가 효용을 창출하기 위해 추후 검토가 필요한 영역을 식별하였다. 이러한 향후 과제들에 대한 검토는 추가 법률·규제 분석과 함께 프로토타입의 실현 가능성과 이를 통해 창출되는 가치를 증진하는 데 필요하다. 여기에는 AML·CFT·금융제재·사기 방지의 검증 방법론 모색, 유동성 절감 메커니즘 개발, 사이버보안 수준 및 운영 복원력 제고, 상호운용성 및 호환성 표준의 고도화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참가 요건, 결제 완결성, 데이터 거버넌스·리스크 관리를 포괄하는 거버넌스 체계, 운영 규칙, 감시 체계에 대한 검토 또한 관할권의 자율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안전하고 확장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이다.

중앙은행을 포함한 프로젝트 참여기관들은 프로토타입의 잠재적 효용을 심층 검토하는 데 강력하고 일관된 관심을 표명하였다. 후속 작업에서는 중앙은행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민간부문의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